

이용만 하고 가꾸지 못한 도시공원 광주 푸른길공원이 아프다

시설 과다설치·쓰레기 투기 등 '신음'

쓰레기 방치 눈살



'도시공원의 모범 사례'로 극찬을 받아온 광주 푸른길공원이 죽어가고 있다. 조성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시설 과다 설치와 쓰레기 투기, 공원 운영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평범한 도심 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푸른길공원은 지난 2002년부터 본격 조성되기 시작한 지난해 말 광주역 주변~남구 동성중 인근까지 7.9km 가운데 남광주시장 인근 0.32km를 제외한 7.58km가 완료된 상태로 모두 27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하지만 시민들이 운동과 통행 등을 위해 공원을 본격적으로 이용하면서 시설 과다 설치 및 관리 부실,

쓰레기 투기, 주변 주택·점포와의 연계 미흡, 공원 운영 프로그램 부재 등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나무 심기, 청소 등 자발적으로 공원 조성에 참여한 시민들의 수준높은 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희망근로로 쓰레기를 줍고 있는 정모(65)씨는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먹고 남은 음식부터 집에서 나온 쓰레기봉투까지 버리고 있다"며 "특히 담배꽂이가 곳곳에 버려져

운동기구 관리 부실



치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푸른길공원의 관리 주체가 공원이 거쳐가는 북구, 동구, 남구 등 3개 자치구에 각각 분산돼 있어 이들 자치구가 경쟁적으로 운동기

파손된 벽화



구, 예술작품 등을 설치하는 등 공원 전반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부실하다. 바닥재질도 모래와 우레탄 등으로 자치구에 따라 서로 다르다. 나무데크나 벤치는 곳곳에 넘쳐나는 반면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박상은(35) 간사는 "국내외에 그 사례를 찾지 못할 정도로 공원 조성과정은 모범이 됐지만 그 후 관리·운영은 낙제점"이라며 "시민들도 이용하는 데에만 치중할 뿐 소중한 도심 공간을 어떻게 지키고 가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심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주의 대표자원인 푸른길공원의 관리체계를 시민과 전문가,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일원화시키고 주변의 역사문화자

원의 복원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 조동범 조경학과 교수는 "공원 조성이 끝나고 어떻게 이를 관리·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역 내 의견이 정리되지 못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남광주역사를 비롯한 옛 도심철도의 역

손잡이는 어디갔나



사와 문화를 되살리고, 금연지구 지정이나 시설물의 대폭 조정 등 상징성에 맞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푸른길공원은 지난 2001년 광주시가 도심 폐선부지를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로 결정한 뒤 시민과 각계 전문가가 조성과정에 참여하면서 도시공원의 모범 사례로 극찬을 받아왔다.

/윤현석기자 chadol@/사진=이명주기자 mjna@



영호남 어린이들 연어 방류

제 19회 '세계 물의 날'인 22일 구례군 토지면 어울목 섬진강변에서 구례 토지초등학교와 경남 하동 간문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어린 연어들을 방류하고 있다. 이날 섬진강에는 5~7cm 크기의 치어 20만마리가 방류됐다. /구례=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암호 통선문 설치 뱃길 복원

1000t급 운항 가능...환경단체 "운하사업" 반발

정부와 전남도가 영산강 유역에 중·소형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영암호에 폭 20m의 통선문(通船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00t급 여객선과 500t급 관광유람선 등이 영암호에서 영산강 상류 67km 지점 광주시 승촌보까지 운항이 가능해진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의 거쳐 영암호에 폭 20m·길이 70m 규모의 통선문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지난 2004년 '영산강 뱃길복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2006년부터 영산강 하구둑과 영암호에 황포돛배와 유람선이 다닐 수 있는 통선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전남도와 정부는 통선문 신설 공사를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중 영암호 배수갑문 확장공사(80~410m)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통

▲통선문(通船門)=바다와 강을 연결해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방조제에 설치하는 문. 입구와 출구에 각각 갑문을 세우고 한쪽 문을 열어 배가 들어오면 문을 닫고 반대편 문을 열어 수위(水位)를 조절,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선문 없이 배수갑문(폭 66m·높이 11.5m·갑문 5개)만 설치하는 공사를 설계변경해 201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영암호에 통선문이 생기면 서해에서 500~1000t급 배가 영암호로 들어와 영산호를 잇는 연락수로(폭 140m)를 거쳐 영산강을 따라 죽산보, 승촌보(淸·陂)가 있는 상류 67km까지 오갈 수 있다.

전남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통선문 공사에 들어가 수질개선은 물론 선박 왕래가 가능한 살아있는 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결국은 운하사업"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일본 돕기 성금 600억원 육박

광주·전남 모금활동도 활발

대지진 사태가 발생한 일본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우리 국민의 성금이 500억원을 넘어섰다.

광주시도 21일까지 물품과 성금 2억6900만원을 모았고, 전남도와 광주 광산구 등도 일본 돕기에 동참하는 등 지역 내 모금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전남과

지 국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으로부터 답지한 성금을 파악한 결과 581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민간부분의 경우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80억원, 엔씨소프트 73억원, 대한적십자사가 68억원 등 모두 580억원에 달했다.

일본 대지진 후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선다이에 구호품을 보냈던

광주시는 13일까지 성금을 접수받아 선다이에 지정기탁할 예정이며, 전남도도 지난 15일부터 한 달간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도 이날 직원들이 모

은 성금 593만5000원을 광주시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에 맡기고 청사 입구에 모금함을 설치해 민간 차원의 돕기 운동도 벌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ww.worldkitefestival.kr

산수유 꽃바람
 내게로 날리지, 이쪽으로 띄우자!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 2011

International Kite Festival 2011

3.31(목) ~ 4.3(일) 4일간

- 장소: 경상북도 의성군 일원
 개최처: 의성종합운동장
 국제연날리기대회: 안계면 위천 둔치
 전국연날리기대회: 봉양면 탐사온천관광지구
- 참가국: 24개국 (가나,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쿠웨이트, 태국, 프랑스, 필리핀, 호주, 대한민국)
- 주최: 의성군 毒日新聞社
- 주관: 의성 국제연날리기대회 조직위원회